
 논문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공동체 활동 발굴에 관한 연구: 영등포구 대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을 대상으로

Study on Community Activities Tailored Excavation through the Survey:
Focused on Daerim-dong, Yeongdeungpo-gu, Targeting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 District

정재경*
Chung, Jae-Kyoung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residents of the community activities in humanities and sociological approach to derive the need for community action program and the space required by a Korean-Chinese natives and we propose to discover a customized community activities. In order to customize anaerobic communities and indigenous Korean-Chinese activities it can be seen that the important elements such as recovery and activation of communities What's more important, to overcome the social and cultural heterogeneity. Daerim- 2dong characteristics of social and cultural change, introduced the process of Korean-Chinese, look at the change of living space how you will overcome the social and cultural heterogeneity between residents, whether I was diagnosed embrace and go. Was raised the need for a joint use facility through in-depth interviews, in the case of a Korean-Chinese live longer duration were many comments on the need for a joint use facility. In addition, Aboriginal and Korean-Chinese have been drawn to the program of joint use of facilities you want, and of training and support facilities, facilities for old people and Infants, seating facilities, it was found that the two groups jointly desired program. In this study, through which access to the people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activities for the community was unearthed tailored to Aboriginal and Korean- Chinese, was to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and activation of a future community residents.

주제어: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활동, 중국동포, 영등포구, 대림동, 도시재생

Keywords: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 Community activities, Korean-Chinese, Yeongdeungpo-gu, Daerim-dong, Urban Regeneration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주저자: chjk0213@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간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영등포구 대림동의 경우는 서울시내에서 중국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지역으로 거주민의 70%~80%가 중국동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대림동에서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지, 혹은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어떻게 포용하고 갈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대림동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주민과 중국동포들이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하나의 주민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림동 주거환경관리구역에 있어서의 맞춤형 공동체를 발굴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맞춤형 공동체 활동 발굴 및 공간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및 인식 등을 듣기 위해 현장조사,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은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동포들이 요구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과 맞춤형 공동체 활동을 발굴하고 공간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은 ‘대림2동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거주자 15명, 구역 외 대림2동에 거주하는 주민 13명, 대림동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대상자를 ‘대림2동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한정시키지 않은 이유는 첫째, 원주민과 중국동포가 함께 거주하는 지역이 대림2동 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이 예외적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타지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도 같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대림2동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을 둘러싼 대림2동 전체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에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도 필요로 했다. 셋째, 대림2동의 중국동포 사회의 특징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유동인구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림2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부 거주자들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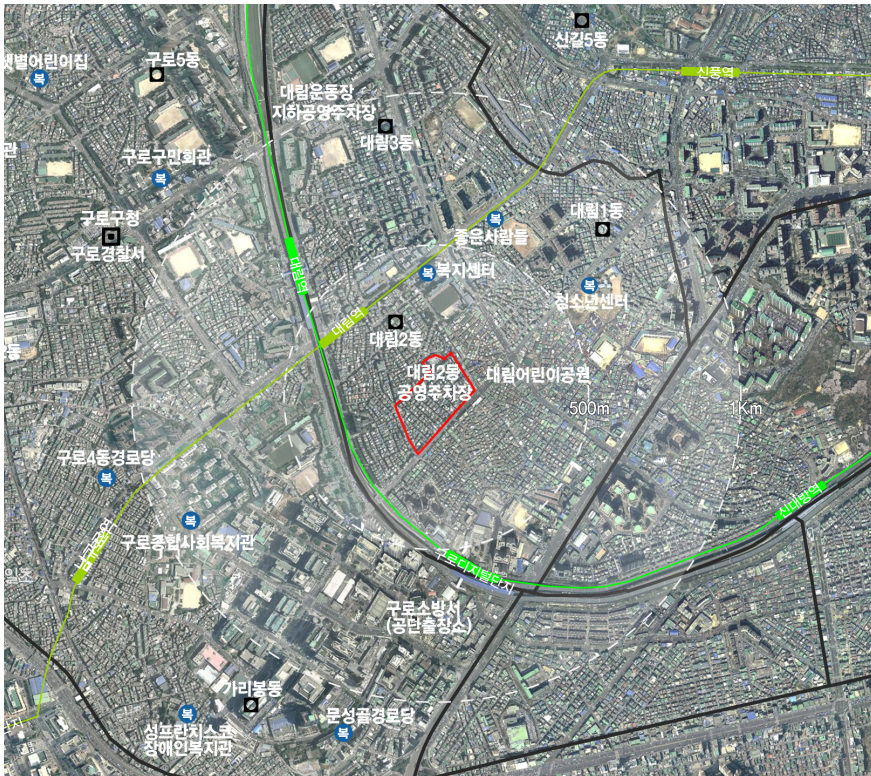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지역

II.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론고찰

1) 공동체 개념 정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기 위해 먼저 공동체(커뮤니티)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짓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공동체(커뮤니티)’란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다양한 대상지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 어법이나 통일된 제도가 성립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닌다.

표 1. 공동체 정의

유형	내 용	출처
공동체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이며, 보통 같은 관심사를 가짐. • 인간의 공동체에서는 믿음, 자원, 기호, 필요, 위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며, 참여자의 동질성과 결속성에 영향을 주고 받음 	Wikipedia 인터넷 사전
공동체의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감, 영향력, 요구충족, 사건의 공유, 정서적 연결 	
공동체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 도덕·정서적 통일체, 상징적 문화, 언어 범주, 사회 또는 경제체계, 사회 관계망 등의 다양한 기준과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조건인 지리적 영역, 공동체를 출현시키는 과정인 사회적 상호작용, 집단 결속과 공유가치를 가져오는 심정적·상징적 공통 연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강대기 (2001)
바람직한 마을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장소의 역사와 특성,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자본의 논리에 움직이고 있던 도시공간이 사람들의 생활 세계를 담아 내어 삶의 활기와 생기, 이웃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소통의 공간'으로 재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김은희 (2005)
주거환경 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 	서울시청 (2013)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란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이며 지역성, 도덕·정서적 통일체, 상징적 문화, 언어 범주, 사회 또는 경제 체계,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그 장소의 역사와 특성,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공동체=환경을 공유하는 사회집단+장소의 역사와 특성, 주민들이 함께 새로운 가치 창출]

이와 같은 공동체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 활동은 공간적 차원에서 일정한 영역을 공유하는 지역성,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체의 핵심인 주민들의 일상을 담고,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맥락을 확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기재로서 물리적 공간인 공동이용시설의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공동체 활동의 대상과 내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체 활동은 광범위한 대상지에서 적용되고 있다. 광범위한 대상의 공동체 활동 중 연구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 활동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연관시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체 활동의 대상을 대림동 원주민과 중국동포로 한정하고자 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되는 서울의 다른 모든 지역이 한국인 주민들로 구성된 반면 대림2동은 중국동포들이 주민의 60%(실제로는 거주 및 생활 인구의 70~80% 가까이)를 구성하고 있는 매우 특수한 지역이다. 현재 한국에는 46만 여명의 중국동포들이 체류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다수는 중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 들어와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 중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가장 많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곳이 바로 대림2동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혹은 한국 국적회복 및 취득을 통하여 한국시민이 된 중국 동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 이처럼 중국동포들이 밀집하다 보니 동포를 상대로 하는 음식점, 여행사, 노래방을 비롯한 각종 상점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서울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 각종 모임을 갖기 위해 대림2동을 찾아온다. 이와 같이 대림2동은 국내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생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 밀집지역의 등장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웃을 받아들여야 하는 한국인 원주민 그리고 지역의 안전,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에게도 새로운 도전의 출현을 의미한다. 특히, 같은 지역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과 중국동포들은 상호교류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간에 갈등, 오해, 그리고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는 원주민들과 중국동포의 상호교류가 중요하다. 현재 중국동포들과 원주민들 대다수는 함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기보다 각자 독자적인 단체 활동을 하기를 원한다. 같은 지역을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서로 간의 갈등과 오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원주민과 중국동포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인 공동이용시설이 필요하다. 단순한 공간 제공이 아니라 원주민과 중국동포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자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공간 디자인을 통해 맞춤형 공동이용시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2. 공동이용시설의 정의

구분	공동이용시설의 법적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 (공동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소득원 개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2. 선행연구 고찰

기존에 수행된 외국인 밀집지역과 관련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동포의 입국 정책에 대한 연구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의 정체성 혼란에 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다. 최근 연구 가운데 중국 동포들에 대한 단순 통계나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간구조나 물리적인 요소를 도출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¹⁾

선행연구를 동향을 살펴본 결과,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원주민과 중국동포간 사회·문화적 이질감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특히,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체 활동 및 공동체 활동의 물리적 공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 각각의 자생력도 중요하지만 상위계획 단계의 공공이용시설의 공간구조,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디자인 등과의 통합성과 일관성 유지가 공동체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선행연구 동향

저자	주요 내용
박신영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살아가는 내국인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인 한남동과 가리봉동 두 지역의 내국인 집단을 비교 • 내국인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는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내국인들은 소득이 높은 계층의 외국인들과 그들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선호하는 반면, 낮은 계층의 외국인이나 가난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의 유입은 반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김현선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구와 영등포구에서 밀집지역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중국동포들의 정주의식에 대한 연구 • 중국동포들은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서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에 대한 의향이 높은 집단이며,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이들 중국동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줌
김영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림동 지역에서 심층 면담을 통해 집단 거주지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중국동포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연구 • 동포들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드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 지속적으로 인정투쟁을 해나가고 있음. 이들이 이질적인 집단으로 계토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개입이 필요함
한기수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밀집지역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적 경쟁력 확인, 다중회기분석을 이용해 가치요소를 검증 • 외국계 투자기업, 외국인 지원시설, 쇼핑시설, 주민1인당 공원녹지량, 유희환경이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거특성 요인임을 도출
서지수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림동 지역의 중국동포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에게 있어 대림동이란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석 • 대림동이 가진 통로성에 주목, 연변과 서울을 이어주는 통로로서의 기능 및 주말에 집결하는 장소이므로 이들을 받아들일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림동이 변모하고 있음
위한빈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리봉동 형성의 사회적 배경 및 물리적 환경을 도시적 차원에서 분석을 통해 지역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물리적 요소를 파악 • 주민들이 원하는 물리적 요소는 지역내 녹지조성과 편의시설 확충, 중국인 상업시설 보완, 지역치안의 강화가 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길 원함
전병규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의 집단거주지에 대한 장소인식 및 이용특성분석 • 문화적 차이와 인종주의적 편견 때문에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갈등과 다양한 소외, 배제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주민센터를 제외한 다른 시설을 미이용, 한편 중국인은 여러 시설들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음

Ⅲ. 대림동의 사회·공간적 특성 분석

1. 사회적 특성분석

1) 중국동포의 인구 현황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일자리를 찾아 중국인 및 중국동포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방문취업제 시행(2007.03.04)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는 친인척의 초청을 통해서만 입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초청인은 주로 경상도 지역과 전국으로 흩어져 있지만 초청되어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주로 취업이 비교적 쉬운 서울에 거주하게 되었다.

2007년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한국에 연고가 없는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 체류가 가능해지면서 중국동포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그에 따라 2006년 이후 서울시의 중국동포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은 2006년 대비 39.8%가 증가되었으며, 2013년 약 -11.6%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이후 대림동의 중국동포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은 2006년 대비 46.4%가 증가되었으며, 2008년 약 56.3%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2>의 그래프는 서울시와 대림2동의 중국동포 인구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다. 2007년 도입된 방문취업제²⁾로 입국허가가 쉬워짐에 따라 중국동포의 유입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또한 2011년 이후 중국동포의 수가 급감하는 이유는 2007년 3월부터 도입된 방문취업제 때문이라 판단된다. 방문취업제 도에 의한 체류기간이 지나 비자가 만료돼 출국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20만여 명에 달하던 방문취업 입국 중국동포들은 2013년 현재 18만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비자의 한국체류기한인 4년10개월이 만료되면서 이전 입국자가 부득이 귀국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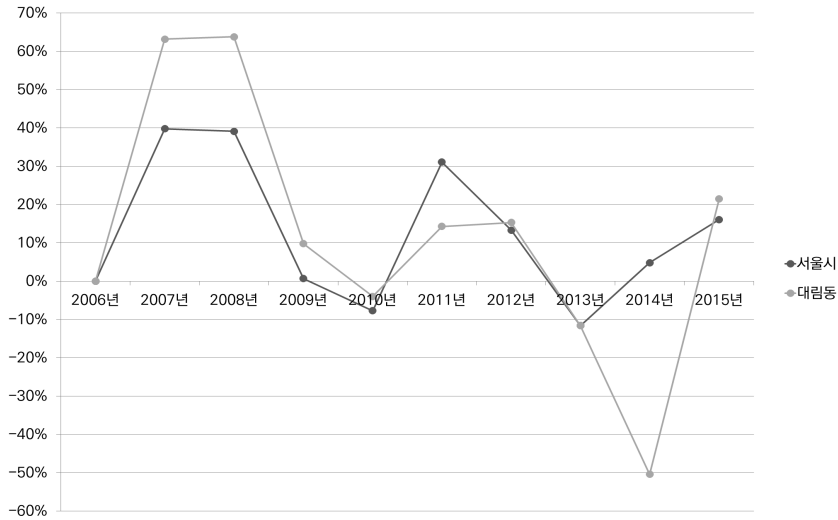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와 대림동의 중국동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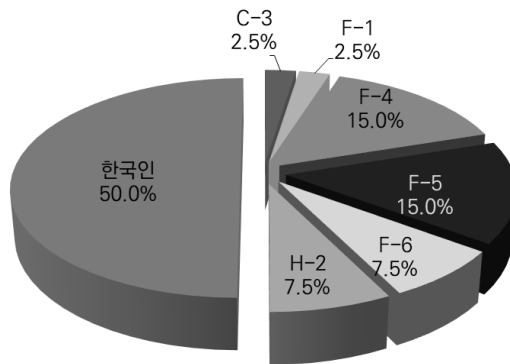


그림 3. 조사대사자 중 중국 국적자 비자현황

2012년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이 전 년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방문취업비자의 만료에 따른 출국자들의 증가가 가장 커다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3년에 들어 정부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최근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 현재 서울시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는 183,617명으로 2012년에 비해서 약간 늘어난 감소한 상태이다. 하지만 추첨입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4에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추세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입국 희망자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노동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대다수는 50·60대인데 이들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보다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서 단순노동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 또한 중국에서의 경제적 기회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 년 내에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수는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후 서울시 전체의 중국동포 인구 증가율은 증가하지 않는 반면 대림동의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는 대림동이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곳이며 가까이에 지하철 1호선과 시흥대로 등 타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한 교통의 편리함, 이미 형성된 인력시장, 동포간 연결망 등 주거, 교통, 일자리, 연결망 등 주거지 형성요소가 다양하게 작용되었기 때문이다.

2) 중국동포의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2007년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한국에 연고가 없는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 체류가 가능해지면서 중국동포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중국동포의 한국 유입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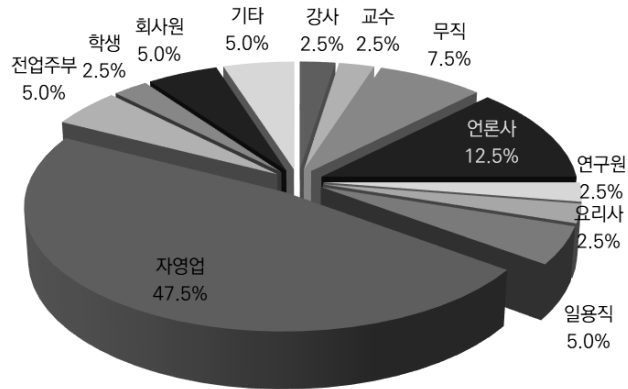


그림 4. 조사대상자의 직업현황

첫째, 국내 저임금 노동에 대한 수요확대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저임금 노동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다. 80년대를 기준으로 한국의 저임금 노동이 중국과 물가대비 수입이 보장됨에 따라 중국동포의 한국 유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히 하는 중국동포들은 40대~50대이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주로 농사일을 하던 농민 출신으로 중국에서 농사 지어 얻는 수입보다 한국에서 힘들지만 3D업종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한다.

둘째, 타 외국 국적의 외국인들보다 중국동포의 능숙한 한국어실력 때문이다. 중국동포들의 한국어 수준은 타국적 동포들에 비해 월등한 편이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소수민족교육 일환으로 조선족들에게 조선어(한국어)교육을 의무교육에 편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북한어를 표준으로 배우기 때문에 억양이 다르고 외래어 사용 등이 미숙하며 한국인에 비해 표현력이 약한 편이다. 하지만 중국동포의 한국어 수준은 세대별 차이가 있다. 80년대 말부터 폐교되는 조선족학교가 늘어나고 조선족마을에 조선족학교가 없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한족학교를 다닌 20대~30대의 경우는 한국어를 전혀 모른다.

과거 80년대에 비해 2013년 현재 중국동포들 중 국내 장기체류자가 많아지고 특히 가족단위로 정착하는 경향이 있어 소득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소비하는 편이다. 일부 중국에 집을 사기 위해 송금하거나 자녀가 중국에서 학업 중이라든가 등 이유로 송금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송금하는 것보다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 공간적 변화 특성

대림동은 1949년 지금의 신대방동과 신도림동 지역을 합쳐서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신대방동의‘대’와 신도림동의‘림’을 합하여 동명이 정해졌다. 그 중 대림2동은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인 대림역 입지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임대료가 저렴하여 중국동포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가리봉동은 중국동포의 대표적인 집거지였다.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 동포들이 한국생활을 시작하는 첫 번째 근거지이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가리봉동은 월세, 전세 등 거주비용이 저렴하다. 주거환경은 열악하지만 처음으로 입국하는 동포들이 생활비용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그나마 한국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다. 둘째, 가리봉동을 비롯한 그 주변지역에 동포들을 위한 쉼터라든가 동포단체가 많아 한국생활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의집(교회), 한중사랑교회 등 교회에서 중국동포들에게 저렴하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리봉동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최초입국자들이 일시 체류하다가 이곳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가리봉동의 연변거리를 중심으로 중국동포 밀집지를 형성하여 거주하던 중국동포들이 2008년 5월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 둔 한시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중국동포들의 밀집지가 인근 지역으로 확대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교통이 편리하여 타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중국동포들을 위한 편의시설(중국식당, 여행사, 행정사무소 등) 이 잘 갖추어진 대림2동으로 이주하는 중국동포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2013년 현재 가리봉동보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중국동포가 더 많다. 이유는 첫째, 대림동의 주거환경이다. 주거비용은 대림동이 가리봉동보다 비싸지만 동포들 사이에서 대림동은 가리봉동에 비해 생활주거환경이 더 쾌적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족단위로 이주하는 중국동포 때문이다. 중국동포들의 경제수준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 가족단위로 이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쉽거나 고시원에서 생활하기 보단 전세나 월세를 구하여 함께 생활하는데 타 지역에 비해 대림동은 중국동포들에게 어느 정도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전세나 월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대림2동으로 중국동포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중국동포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각종 모임을 갖기 위해 대림2동을 찾는 중국동포들이 많아지면서 대림2동은 중국동포들의 밀집주거지이자 국내 중국동포사회의 중심지로 변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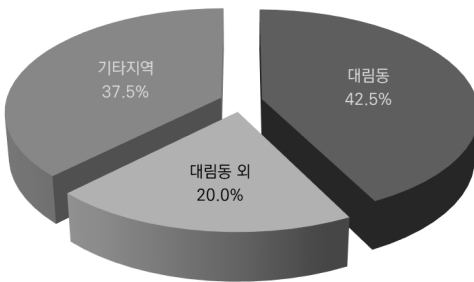


그림 5.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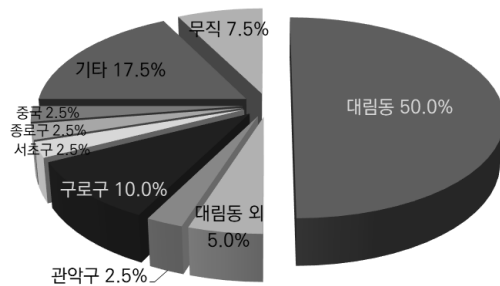


그림 6. 조사대상자의 직장위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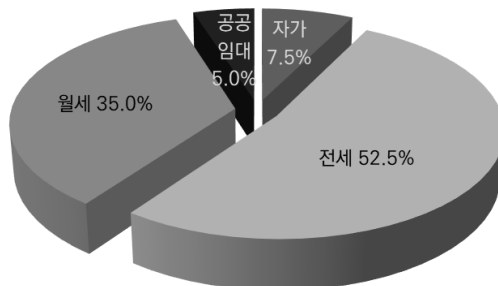


그림 7. 조사대상자의 거주유형 현황

3. 중국동포 지원조직 특성

1) 언론사 특성

중국동포 언론은 2000년 이후 인터넷 보급으로 빠르게 늘어났는데 대표적으로 동북아신문·중국동포신문·중국동포타운신문 등 10여개가 있다. 대부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중국식당·식품점·여행사·행정사 등 중국동포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비치해 중국동포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동포들의 집거지가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점차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확대되면서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사도 늘어났으며, 일부 언론사는 타 지역에서 대림동으로 이전하여 현재 대림2동에 위치한 중국동포 언론사는 6개이다.

표 4. 대림2동 중국동포 언론사 현황

언론사	대표자(국적)	설립년도	언론사 특징
동북아신문사	이동렬(중국)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오피니언 강화 • 학술내용 기재 • 내국인들의 온라인 구독이 많음
한민족신문사	전길운(중국)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동시 운영 • 신문사에서 쇼핑물, 여행사, 예술봉사단 운영
흑룡강신문 주간지	나춘봉(중국)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정부에서 운영하는 흑룡강신문 자매지 • 중국정부와 중국 지역뉴스 강화
한중상보사	이영한(중국)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사, 예술교류협회 운영
한중일보	김성근(중국)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쿤룬 중국식당 및 음식점 운영
월간중국동포소식	이용후(한국)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적으로 기술교육학원(세탁기능사, 관광가이드 등) 운영 • (사)한중경제교류협회 운영

2) 단체 특성

중국동포를 대표하는 단체는 크게 3개가 있다. 귀한동포연합총회, 재한동포연합총회, 중국동포 한마음협회가 중국동포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귀한동포연합총회는 중국동포들 중 국적을 회복한 노인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체이다. 귀한동포연합총회는 중국동포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며 중국동포 한마음협회는 동포 2세들이 여러 가지 동호회 모임으로 시작한 단체이다. 대림2동에는 상기 주요단체 3곳 외에도 한줄기봉사단, 중국동포 유권자연맹 등 최근에 설립된 단체들이 있다. 단체장은 대부분 귀화자이며 회원들은 귀화하지 않은 중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많다. 특히, 귀한동포

연합총회 회원은 대부분 귀화자인 것에 반해 중국동포 한마음협회는 귀화자보다 일반 체류자가 더 많다.

여러 단체 중 중앙정부 부처에 등록된 단체는 귀한동포연합총회가 유일하다. 귀한동포연합총회는 안전행정부에 등록되었으며,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지원을 받아 귀화자들의 정체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단체들은 대부분 중국동포의 이미지 쇄신과 권익신장에 그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이다. 그러나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참여가 턱없이 부족하다. 단체장 및 임원들의 운영능력이 미숙하고 봉사성도 약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담, 교육 등 상시 사업이 적고 일회성, 행사성 사업에 치우쳐 있다.

중국동포 단체도 중국동포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영세한 특징을 갖고 있다. 단체장이 식당 등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단체를 운영하는데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한명이 장기간 단체장을 연임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 2012년부터 비슷한 단체들이 설립되면서 단체 연대 혹은 연합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표 5. 대림2동 중국동포 언론사 현황

단체	대표자 (국적)	설립 년도	위치	특징
귀한동포연합총회	최길도 (한국)	2006	대림2동	• 회원 수: 2,000인 • 체류상담, 쉼터 운영, 대림2동 내 영등포지회 운영
구립대림시냇길 경로당	박영철 (한국)	2009	대림2동	• 회원 수: 120인 (평일 평균 이용자수 : 30~40인) • 매일 1회 청소봉사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곽재석	2009	대림1동	• 이주·동포 정책연구분야에서 건전한 싱크탱크 역할
영등포동포상인회	고명선	2009	대림2동	• 세무교육, 자원봉사, 친목회 등
한줄기봉사단	차재봉 (한국)	2012	대림2동	• 회원 수: 50인 • 집수리 봉사, 경로당 정기후원금 전달
한중미래재단	정인갑	2012	대림2동	• 동포축제, 노래자랑 등 대형행사기획
중국동포유권자연맹	홍석모	2012	대림동	• 시민의식 함양교육 등
두만강예술협회	이용주	2012	대림2동	• 예술인들 모임 및 행사참여
재한중국동포여성리더스클럽	유영란	2012	-	• 회원 수: 20인 • 사회 리더십교육, 평생교육(지식나눔), 인재육성

3) 다문화 관련 운영프로그램

연구대상지와 인접하여 ‘영등포 다문화 빌리지 센터’와 ‘대림2동 주민센터’ 두 곳에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등포 다문화 빌리지 센터는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한국을 처음 찾은 외국인들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다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지원사업, 복지지원사업, 문화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모든 프로그램은 거주외국인과 결혼이민자들에게 지원가능하다.

대림2동 주민센터는 다문화 빌리지 센터와는 다르게 대림2동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림2동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다문화 관련 축제는 체육대회 및 노래마당이 있으며 주민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노래교실, 어린이 미술교실 등이 있다.

표 6. 운영프로그램 현황

구분		내용
영등포 다문화빌리지 센터	교육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운전면허교육, 한국문화 이해특강, 영어교육, 중국어교육
	복지지원사업	상담실운영, 다문화도서실 운영, 건강검진 등 복지서비스 운영
	문화지원사업	한국문화 현장체험, 다문화가족 요리교실 행사지원(세계인의 날 행사, 국가별 자체행사 지원), 자율방범활동, 클린봉사대, 멘토링 사업 등
대림2동 주민센터	다문화 축제	체육대회 및 노래마당
	교육프로그램	다문화노래교실, 중국어 교실, 어린이 미술교실

IV. 맞춤형 공동체 활동 발굴

1. 심층면접 분석결과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주민 및 중국동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국동포의 인문·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원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맞춤형 커뮤니티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원주민 및 중국동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국동포의 인문·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원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맞춤형 커뮤니티 발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결과 첫째, 응답자들은 공동이용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중국 국적에 관계없이 다수가 공감(55.0%)하고 있다. 또한 공동이용시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32.5%나 조사되었다. 공동이용시설에 관심 없는 응답자들은 심층면접조사 결과, 한국어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언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한 서투름, 차별적인 시선을 느끼고 한국인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한국인과 상호교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예산지원, 전문가·민간단체의 연계, 주민 교육 및 공동체육성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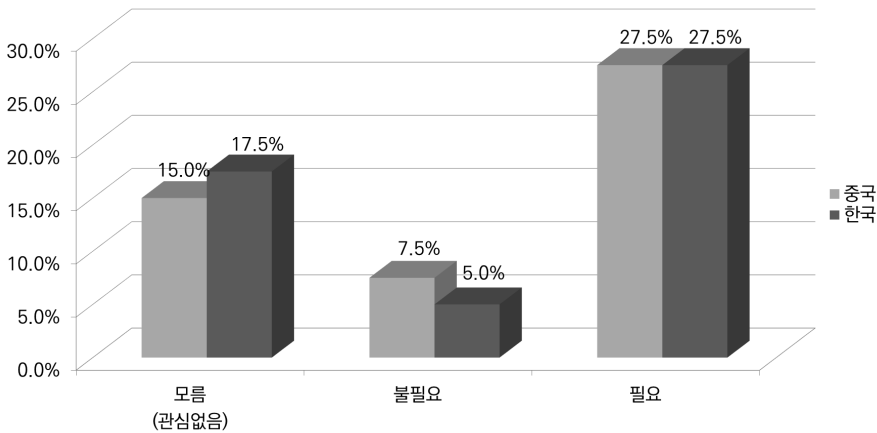


그림 8. 조사대상자 국적별 공동이용시설의 필요성

둘째, 공동이용시설의 용도에 관한 설문 결과, 중국동포의 교육 및 지원시설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다목적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원하고 있다. 원주민의 경우 주민위크샵을 통해 원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용도를 조사한 결과 체육시설, 마을카페, 마을기업·협동조합, 문화시설(문화창작소), 다목적시설을 원하고 있었다. 원주민과 중국동포 모두 체육시설, 문화시설, 다목적시설을 공통으로 원하는 용도로 조사되

었으며, 중국동포의 경우는 교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원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용도가 차이를 보인다. 남성의 경우 교육시설 보다는 문화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문화시설을 원하는 응답자가 없었던 반면에 교육시설을 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동이용시설 내 남성을 위한 문화시설 프로그램과 여성을 위한 교육시설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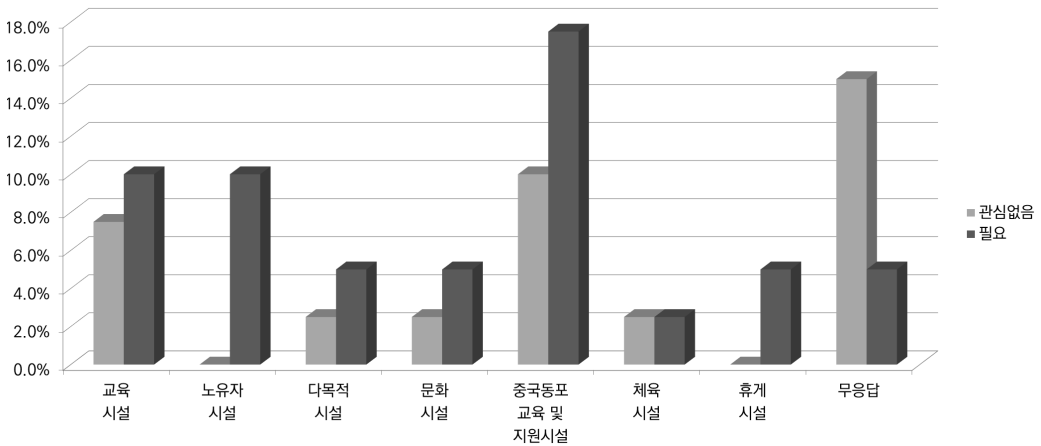


그림 9. 조사대상자의 공동이용시설 내 도입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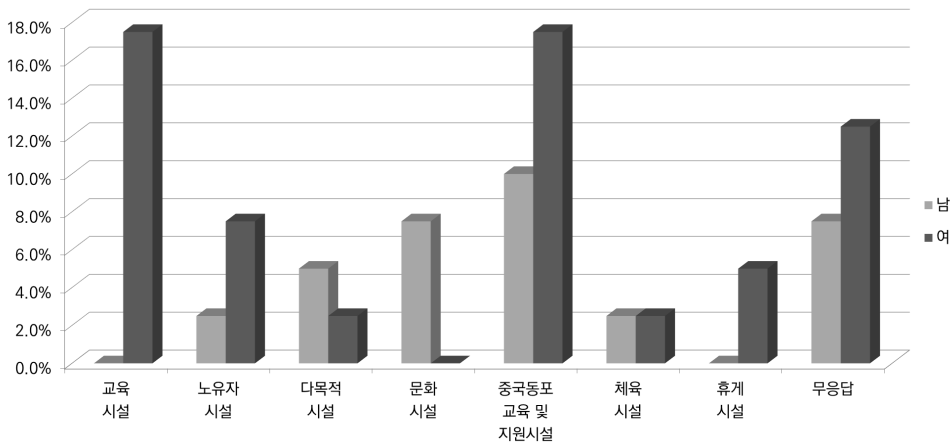


그림 10. 조사대상자 성별 공동이용시설 도입용도

2. 맞춤형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발굴

1)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고려사항

첫째, 중국동포 이주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림2동 거주민의 두드러진 특성은 체류가 불안한 중국동포들이 많다는 점이다. 짧은 체류기간이더라도 지역주민들과 화합하고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면 문제가 없다. 최근 들어 장기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체류자격(F-4) 및 영주체류자격(F-5) 취득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중국동포들의 체류가 불안하고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 주민의식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동포들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는데 왜 동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느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동체 활동은 자율과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자생적인 맞춤형 공동체 활동의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아직까지 내국인과 중국동포들이 함께 만들어 함께 운영하는 단체는 없다. 그 이유는 공동의 목표, 공동의 이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데 있다. 그 이면에는 생활습관, 언어습관, 음식 등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크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함께하려는 의지와 기회 및 장소가 없다 보니 원주민과 중국동포는 대림2동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따로 활동하고 서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이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에 익숙하다. 중국에서도 주류사회인 한족들과 같은 공간에서 따로 살아왔던 것이다. 따라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원주민과 중국동포 간 공동의 목표 및 이익을 도출하도록 유도하고, 서로간의 이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국동포들의 단체활동 참여유도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부분 중국동포들은 단체활동에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얼핏 보기에는 여러 단체들이 난립되어 활동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동포는 소수이며 여러 단체에 걸쳐 소속되어 있다. 단체사업은 행사성 활동이 많으며 상근 활동가가 없다보니 교육, 상담 등 상시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 중국동포들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혈연 중심에 치우쳐 있다. 최근 들어 향우회, 동창회, 문인회, 동호회 등 모임들이 형성되고 있지만 이러한 모임은 아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 경험이 없고 원주민과의 분리를 원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동포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동포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점차 원주민과 어울리는 기회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국동포들과 원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통의 이해관계” 혹은 “관심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2) 중국동포가 원하는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대림2동의 공동이용시설은 대림2동 주민센터가 있지만, 원주민과 중국동포들이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원주민과 중국동포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전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분석·고찰하여 중국동포가 원하는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동포들이 원하는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심층면접 결과, 중국동포가 원하는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은 건강한 회관, 교양 있는 회관, 만남의 회관, 화합하는 회관, 노약자를 보호하는 회관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회관이란 건강교실운영, 정기무료건강검진, 탁구, 스포츠댄스, 헬스 등 다양한 항목 등 의료시설 및 체육시설을 말한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건강의료혜택을 위해 지역건강보험 가입 제도가 있지만 신청방법을 몰라 가입하지 않은 중국동포들이 많으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중국동포들은 의료보험을 받지 못한다. 중국동포가 원하는 건강한 회관은 이를 지원해 줄 시설을 말한다.

교양있는 회관은 중국동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중국어교실, 한국어교실, 영어교실 운영, 다문화인식개선사업 특화, 독서모임, 방과 후 공부방, 주민발언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길 원한다. 부수적으로 신문, 잡지 도서를 비치하고 수업 없는 시간대는 상시 개방하여 열람실 기능을 하길 원한다. 만남의 회관은 한국에 살고 있는 고향친구를 찾을 수 있는 기능과 커피뿐만 아니라 중국동포들이 즐겨 마시는 중국 차(茶)를 즐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말한다. 떡볶이, 월병 등과 같이 원주민이나 중국동포가 즐겨먹는 간식 등을 준비하여 원주민과 중국동포가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화합하는 회관은 지역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민원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통위원회 및 공동 회의실을 운영하여 원주민과 중국동포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또한 희망입주 단체를 내국인단체와 중국동포단체 골고루 선정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동포단체는 마을협의회, 귀한동포연합총회 영등포지부, 외국인자율방법대 등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노약자를 보호하는 회관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미성년 자녀 돌봄사업, 독거노인,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 등 노약자를 위한 공간을 말한다.

3. 공간활용방안

대림동은 공동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의 부재로 대상지 규모에 비해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대림2동에는 주민센터가 한 곳 있지만 이 공간 또한 원주민과 중국도포들이 함께 교류하며 사용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이용시설 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앞서 대림2동의 사회·공간적 변화 특성을 분석 및 중국동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국동포가 원하는 중국동포와 원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을 재정리하였다.

1) 맞춤형 공동이용시설의 필요성

대림2동은 주민이 휴식·교류·공존을 할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공동체 의식 부재와 이웃간 소통 단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 간 교류를 위해 ‘휴식, 교류, 소통, 상생,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통의 공간인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공동체 의식 향상이 절실하다.

마을 특성상 원주민과 중국 동포가 교류·화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필요하여 열린 공간으로서 공동이용시설은 이웃 간의 유대관계 형성으로 방법 및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마을의 커뮤니티 형성·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맞춤형 공동이용시설의 기본방향

공동이용시설의 기본방향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커뮤니티 공간조성과 지속가능한 마을운영이다.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위해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주민 스스로 마을가꾸기와 마을 디자인이 가능한 공간, 주민자치행정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이용시설이 주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 및 경제활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스스로 수익사업을 창출·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마을의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3) 단계별 목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공동이용시설의 단계별 목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적인 목표는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 발굴 및 행정연계 방안 구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이용 홍보 및 이용 상황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익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한 보완 및 피드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커뮤니티형성 지원을 위해 ‘주민공동체’ 구성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활동프로그램 발굴 및 행정연계 방안을 구상한다.

중기적인 목표는 공동이용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운영 모델 창출이다. 운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수익성 안정 및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이용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행정 분야와 협력하여야 하며 마을 미래상에 따른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운영이다. 이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목적이기도 하다. 공동이용시설을 구심점으로 하여 마을 미래상 구현에 따른 지역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공동이용시설 내 도입용도

본 연구는 설문조사, 심층면접 및 문헌고찰을 통해 원주민과 중국동포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원주민과 중국동포가 원하는 공동이용시설의 도입 용도를 도출하였다. 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거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입용도는 마을관리센터, 체육시설, 마을카페, 문화강좌 및 창작실, 협동조합·마을기업, 다목적실, 옥상원으로 도출되었다.

마을관리센터는 공동이용시설 조성시 반드시 필요한 공간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총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다. 마을 내 설치된 CCTV를 통합 관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가정의 부재시 택배 및 우편물 등을 위탁 및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공동이용시설 내 체육시설은 마을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용도이다. 소규모 운동기구(런닝머신, 사이클, 벤치프레스 등)를 설치하고 타 체육시설 보다 저렴하게 운영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도입하여야 한다.

마을카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공간으로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수익사업 공간이기도 하다. 마을에 부족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이용시설의

경제적 자립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원주민과 중국동포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문화강좌 및 창작실은 마을주민의 재능기부 또는 문화예술인 유치를 통해 마을주민의 문화창작 체험 및 교육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간이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 교실(중국어, 한국어 강좌) 및 공부방으로 활용되는 공간이다. 언어, 문화, 생활, 예절, 취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은 수익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공간이다. 비누공방, 반찬가게, 마을식당 등 소규모의 수익사업 모델을 통해 일자리 확대 및 주민들의 협력을 통한 경제 안정화 등 지역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목적실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마을회의, 주민자치교육, 마을의 행사 및 공연, 워크숍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돌잔치, 회갑, 송년회 등 소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옥상정원은 주민 쉼터 및 야외공연, 텃밭가꾸기 등의 공간으로 마을기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소이다. 태양광(열)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V. 결론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완료 및 진행 중에 있다. 대부분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 거주지역인 대림동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시행되고 있다.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민관의 협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이슈화되고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여러 가지 도시 정책 및 사회 변화 추세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두고 인문·사회학적으로 접근하여 원주민과 중국동포가 함께 거주하는 마을 특성을 살리고, 그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활동을 발굴, 공간과의 연계로 주민공동체의 복원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주민과 중국동포들이 요구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과 공간의 필요성을 도출하

여 맞춤형 공동체 활동을 발굴하고 공간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동향과 공동체의 개념 등 이론적 내용을 고찰한 결과, 공동체는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지역성, 사회관계망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한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원주민과 중국동포 간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대림2동의 사회·문화적 변화 특성 분석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중국동포의 유입과정, 거주공간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혹은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어떻게 포용하고 갈 것인지를 진단하였다.

셋째,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대림2동 주민과 중국동포의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간과할 수 없는데, 원주민과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이용시설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중국동포들의 경우 거주기간이 길수록 공동이용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중국동포들이 원하는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과 원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출하였으며, 그 중 교육 및 지원시설, 노유자시설, 휴게시설은 두 집단이 공통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주민들을 인문·회학적으로 접근하여 주민과 중국동포가 함께 거주하는 마을 특성을 살리고, 그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활동을 발굴을 통해 향후 주민공동체의 복원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1. 해당 연구로는 외국인 밀집거주로 인한 내국인 주민의 주거환경 인식에 관한 연구(2009),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2010), 중국동포(Chinese-Korean) 집단적 거주지에 나타난 지역사회에 대한 중국동포의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2011), 외국인 밀집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주거환경 선호요인분석(2011), 다문화 특구지역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장소 인식차 실증분석(2011), 서울 대림동의 조선족 ‘통로(Portal)’로서 장소성 형성(2012), 다문화 사회형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2012) 등이 있음.

주2.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하며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고용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인용문헌

- 행정자치부, 2015. 각 연도 통계자료(외국인주민 현황).
- 강대기, 2001.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 22-27.
- 김은희, 2005.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살기 좋은 동네,” 「국토」, 279: 127.
- 박신영, 2009. “외국인 밀집거주로 인한 내국인 주민의 주거환경 인식에 관한 연구: 한남동,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김현선, 2010.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 서울시 구로·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7: 231-264.
- 김영로, 2011. “중국동포(Chinese-Korean) 집단적 거주지에 나타난 지역사회에 대한 중국동포의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3): 133-156.
- 한기수, 2011. 외국인 밀집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주거환경 선호요인분석: 글로벌 빌리지 6곳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 전병규, 2011. “다문화특구지역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장소 인식차 실증분석: 안산시 원곡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 서지수, 2012. “서울 대림동의 조선족 ‘통로(Portal)’로서 장소성 형성,” 「지리학논총」, 58: 49-75.
- 위한빈, 2012. “다문화 사회형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 가리봉동 중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투고 2018.07.12, 심사 2018.07.23, 게재확정 2018.08.06>